

전북과학고 창업동아리 SURF '최우수상' 수상

트레이드페어·사업결과 발표 국내대회서 국제대회 출전권 획득

전북과학고등학교 창업동아리 SURF(2학년 고학년, 김서현, 정예성, 최지영)가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트레이드페어 및 사업결과 발표 국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내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였다.

이 대회는 1919년 설립되어 전 세계 120개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가 진행하는 대회로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과 경제교육을 위해 국제대회를 진행하는 대회로 국내에서는 2002년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 대회는 전국 78개팀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계획서 발표와 중간발표회를 통해 최종 전국 24개팀이 지난 주말 이틀간 최종 국내대회를 치렀다.

전북과학고 동아리 SURF는 그동안 준비한 '휴대용 여류방직 자바라형 소변통 '주르미' 라는 상품을 준비하여 설문 및 시장조사, 아이디어 설계, 3D도안 작업, 제품 제작, 마케팅,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당일 현장에서 자신있게 발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교육청의 과학교육활성화를 위



전북과학고등학교 창업동아리 SURF가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과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트레이드페어 및 사업결과 발표 국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내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권을 획득하였다.

한 진로교육과정과 전북과의 진로특성화 사업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특히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각종 대회 및 활동에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의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정해은 기자

익산고,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5년연속 대상 수상

익산고등학교(교장 임홍락)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2017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에서 창업동아리팀인 익산요리왕(지도교사 최지현)이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산학협력에서는 첫 출전한 가운데(지도교사 오병도)이 은상을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익산고 창업동아리팀은 지난 4월 계획서를 제출하여 2단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4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전북대학교와 쌍방향 회의를 오가며 작품제작을 연구했고 지난 10일 최종발표회를 통해 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특히 익산고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전례 없는 쾌거를 달성했다.

익산요리왕 팀원인 1학년 문가을, 임연주 학생은 오일페이퍼라는 아이템으로 대상을 가운데서 팀원인 유지승, 정아영 학생은 한지로 만든 허집으로 은상을 수상하여 특목 특은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실험보고서, 세련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주위의 찬사를 받았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창 씬드림 장연희 대표,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고창군 소재의 씬드림(영농조합법인) 장연희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씬드림(영농조합법인)의 장연희 대표는 2009년부터 농촌교육농장을 운영 해 왔으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업 소득향상을 위해 2014년 30여 농가를 회원으로 하고 7명의 이사진을 중심으로 씬드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촌체험관광과 유통사업을 추진했다.

션드림(영농조합법인)은 민선6기 고창군(박우정 군수) 역점사업인 치유형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2015년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치유체험온실, 치유레스토랑을 신축하고 복분자를 첨가한 오방장이 등 치유식단 5종을 개발 판매로 소득을 창출하고 복분자 죽육체험과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여명의 체험객을 유치하는 등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연희 대표가 표창장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각 기능별 협업토론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능별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 기능별 협업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본인의 아니게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 결국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여론에 따라 부서간 협업토론을 통해 상호 애로사항 전달 및 건의사항을 받아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 협의로써 주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전언이다.

최은영 강력계장은 "이번기회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 관촌면 잡곡연구회 김문기 회장, 국무총리 표창

김문기 임실군 관촌면 잡곡연구회 회장(72)이 제 22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회장은 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립종자원과 연계해 15ha의 콩 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 중이며 잡곡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4개지역 작목반을 구성하여 100ha 면적 확대와 생력기계, 가공장비, 유통개선사업 추진,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잡곡연구회와 농촌지도자회 임실군연합회, 이장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관촌면 잡곡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 2014년도부터 국립종자원 전북지점과 협약, 보급종 콩 채종단지를 19농가에 15ha씩을 조성하는 한편 치밀한 작부체계 수립과 적기 농작업을 실시해 전국 우수 콩 생산채종단지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임실잡곡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임실 북부권 4개읍면에 잡곡작목반을 구성, 임실잡곡 명품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시·군·면·리 단위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의 노력은 잡곡 열풍으로 이어졌고, 임실군 114프로젝트에 잡곡이 전략작목으로 선정, 소형작업기와 농자재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잡곡면적은 2012년 2400ha에서 2015년 1000ha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

또한 그는 농촌진흥청 잡곡자급률 향상사업 유치도 이끌어 내는 등 잡곡 자주형 생력 수확기, 주행용수확기, 보관창고설치 등 잡곡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까지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스피치인 축제 성료... 저변확대 목적 마련

최근 진북문화마당서 열린 스피치인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내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와 한국스피치, 용인협회 전북본부 주관한 이 행사는 스피치학습자와 수료생들과 우정, 친목관계 향상을 위하고 매 학기 1회 축제를 통해 스피치인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합동특강에는 홍영식 한국적무능력개발원장, 김양욱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등이 나섰다.

이날 주요입상자로는 우석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인 화합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기자랑부문 대상으로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김남희씨, 최우수상에 전주교육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최경애씨가 수상을 받았다.

/이상민 기자



부안경찰서, 화물차의 안전운행 집중단속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화물차의 교통량이 많은 23번·30번 국도 일대에서 난폭운전과 과적운행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증가와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와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화물차의 준수와 안전운행을 위해 신호 준수 끼어들기·포리 불기 금지 등 기초교통법규 준수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 화물 과적, 난폭운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확실히 근절시켜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보충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68-9700 •업무국 FAX 268-9703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82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35	광주지사 253-6844	남원지사 822-388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8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8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큰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질건고추 고춧가루